

# 일본의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는 허구적(虛構的) 이론이다

(Japan's Imna Japan headquarters is a fictional theory)

교육학박사 오 운 흥

## ◀연구요약▶

일본의 국학자들과 국내 일부 학자들이 ‘(고대) 한반도 남부경영설’을 주장한다. 『일본서기』와 『고사기』에 나오는 신공황후(神功皇后)는 4세기 말에 임나뿐만 아니라 신라·백제를 복속시켰다고 한다. 본 연구는 스에마쓰(末松保和)의 『임나흥망사(任那興亡史)』에 나오는 <임나일본부>를 분석하고, 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 (1) 임나국과 축자국이 현 중국에 위치하며, 임나가 김해 가야국이 아님을 밝혔다.
  - (2) 광개토왕의 남벌 동기인 신라, 백제, 가야, 왜의 관계를 중국 대륙에서 찾아냈다.
  - (3) 신공황후의 전투지가 황하 유역이며, 그녀가 백제 근초고왕의 용병임을 밝혔다.
  - (4) 일본이 주장하는 4세기 말 야마토 왜의 위치가 중국 남동해안 지역임을 밝히고 야마토의 신공황후가 한반도 남부에서 활동할 수 없었음을 밝혀냈다.
- 결론은 ‘한반도의 임나일본부’ 설(說)은 허구적 이론임을 증명하였다.

## ◀주제어▶

- (1) 임나일본부, (2) 신공황후, (3) 임나국(任那國), (4) 축자국(筑紫國)

<p>&lt;목차&gt;</p> <p>I. 서론</p> <p>II. 임나일본부(설)의 해부와 분석</p> <p>III. 임나국과 축자국의 위치 추적</p>	<p>IV. 광개토왕 비문 해석과 삼국의 정세</p> <p>V. 야마토 왜의 위치 논의</p> <p>VI. 신공황후는 백제의 용병이다</p> <p>VII. 결론 및 제언</p>
--	--

## I. 서론

### 1. <임나일본부>론은 ‘생면부지 이론’이다

“임나일본부론은 왜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를 침공하여 6세기 후반까지 지배하였다는 것이다. 임나일본부론은 『일본서기』 신공기의 삼한정벌, 임나일본부 기사, 광개토왕비 왜의 침공 기록과 『송서』 왜국전 왜(倭) 5왕 기사를 논거로 성립되었다” (박천수:21쪽 ※참고문헌).

일본에서 보는 “‘한반도남부경영설’은 『일본서기』, 『고사기』에 보이는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전설과 겹쳐져 임나뿐만 아니라 신라·백제를 복속시켰다는 설이다.”<sup>1)</sup>

그런데 우리 역사서에 ‘임나일본부’라는 기록이 없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일연의 『삼국유사』와 서거정의 『동국통감』 및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등에 ‘임나일본부’ 기록이 없다. <임나일본부> 설은 <조선사> 발간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생면부지 이론이다.

이런데도 “나카 미치요(那珂通世)는 조선 침략이 시작되던 1894년에 「조선고사고(朝鮮古史考)」를 써서 『삼국사기』를 비판했다.”(이덕일:56~59). 나카 미치요가 『삼국사기』 불신론을 주장한 이유는 자신이 바라는 ‘임나=가야’ 기록이 없으며 『삼국사기』를 불신했는데, 남의 나라 역사서 모두를 불신할 것인지, 대책이 없는 주장이다.

## 2. 유사역사서, <조선사>가 나온 배경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면 조선 역사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역사책을 수거하여 태우고, 규장각의 수많은 사서를 일본으로 가져갔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유사역사(類似歷史)’ 집필을 지시했다. “과거 역사책을 못 보게 막는 대신, ‘새로운 논리에 따른 사서(유사역사)’를 만드는 것이 첩경이며 그 효과가 클 것이다.”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조선에서의 교육 시책 요결’ 지시(1922)에서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알지 못하게 하라<sup>2)</sup>”

조선총독부가 1938년에 <조선사>를 발간하면서 ‘임나일본부’라는 개념을 끼워 넣었다. 1922년에 조직한 ‘조선사편찬위원회’의 결과물이다. 이 일들은 일본의 조선 침탈을 정당화하고, 조선을 영구통치하기 위해 기획한 일이다.

## 3. 연구의 목적

<임나일본부>가 허구임을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조선사> 등 유사역사를 만들어내는 일본 학계의 오래된 습성을 밝혀내고,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데 있다.

## 4. 주제어의 정의

### 1) 임나일본부(Imna Japan headquarters)

일본이 한반도 침략의 정당성을 위한 정한론(征韓論)의 하나로, 스에마쓰의 『임나흥망사』의 핵심인 ‘한반도 남쪽에 직할의 통치기관이 있었다’는 학설이다.

### 2) 신공황후(Empress Shingong)

신공황후는 중애(仲哀)왕 제3의 비(妃)이다. 김정기의 『일본 천황 그는 누구인

1) 야마사키 마사토시(山崎雅稔), 일본의 가야사연구-임나일본부설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학회 엮음,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주류성, 2018). 319쪽

2) <조선일보>, 일(日)총독 “조선인은 조선사 모르게 하라”, 1986.8.17.

가』(289쪽)에 의하면, 천황 칭호는 7세기 후반, 덴무(天武) 왕정(672-686) 때 성립되었다 한다. 이보다 앞선 중애왕(192-200)에게 천왕의 호칭은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신공황후’가 아니라 ‘신공왕후’가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 학계에서 ‘신공황후’로 쓰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 흐름에 맞췄다.

### 3) 임나국(Imna country)

<임나일본부>의 핵심은 왜왕이 한반도의 임나가라를 점유하고 통제했다는 것이다. 『일본서기』 송신(崇神)천황 조에 ‘조공을 바쳤다는 임나국’과 고구려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임나가라(任那加羅)’를 같은 곳으로 본다.

### 4) 축자국(Chukja country)

『일본서기』 송신천황 조에, ‘임나는 축자국에서 북쪽으로 2,000여 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했다. 임나의 위치를 찾는 기점이 되는 곳이다.

## II. 임나일본부(설)의 해부와 분석

### 1. 일본 정한론이 만든 남선경영론

임나일본부설을 ‘남선경영론(南鮮經營論)’이라고도 한다. 이는 일제가 조선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 낸 식민사관으로서, ‘고대부터 외세의 간섭과 압제 속에 조선 역사가 시작됐다’는 타율성 이론이다. “에도시대(1603~1867)에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 등의 일본 고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일본이 태고 때부터 조선을 지배했다는 이론이다. 그 뒤 메이지 연간(1868~1911)에 문헌 고증의 근대 역사학이 성립되면서, 일본 국학 연구의 전통을 이어받은 간(菅政友), 쓰다(津田左右吉), 이마니시(今西龍), 아유가이(鮎貝房之進) 등은 일본의 임나 지배를 전제하고 주로 임나 관련 지명 고증 작업을 행하였다고 한다. 이어 스에마쓰는 『대일본사』(1933)로 일한(日韓) 관계를 정리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학문적 체계를 갖춘 남선경영론을 완성시켰다. 그것이 『임나흥망사』(1949)이다.”<sup>3)</sup>

### 2.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의 요점과 분석

다음에 소개하는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의 요약 부분은, 주 3)의 ‘남선사관(임나)에 대한 일본학계의 흐름 정리’에서 인용한 것이다. “1) 『삼국지』 「위지」 <왜인전> 서두의 문구로 보아, 3세기 중엽에 이미 변진구야국(弁辰狗邪國), 즉 임나가라를 점유하고, 왜왕은 그 중계지를 통해 삼한에 통제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한다.

2) 『일본서기』의 신공황후가 7국 및 4읍 평정 기사로 보아, 369년 당시 왜는 지금

3) 출처: 네이버 블로그 ‘히스토리의 역사산책’ 중 ‘남선사관(임나)에 대한 일본학계의 흐름 정리’  
(<https://blog.naver.com/joonho1202/221237908078>)

의 경상남북도 대부분을 평정하고,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일부를 귀복시켜 임나 지배체제를 성립시키고, 백제왕의 조공을 서약받았다고 한다.

3) 광개토왕비문의 기사로 보아, 왜는 400년 전후해서 고구려군과 전쟁을 통해 임나를 공고히 하고 백제에 대한 복속 관계를 강화하였다고 한다.

4) 『송서』 <왜국전>에 나오는 왜 5왕의 작호로 보아, 일본은 5세기에 외교적인 수단으로 왜·신라·임나·가라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 남조로부터 인정받았으며, 백제의 지배까지 송나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였다고 한다.

5) 『남제서』 <가라국전> 및 『일본서기』 게이타이(繼體)왕 때의 기사들로 보아, 일본은 5세기 후반에 임나에 대한 통제력이 완화되기 시작해 6세기 초반에는 백제에게 전라남북도 일대의 임나 땅을 할양해 주기도 하고, 신라에게 남가라 등을 약탈당하기도 하면서 임나가 쇠퇴하였다고 한다.

6) 『일본서기』 긴메이(欽明)왕 때의 기록으로 보아, 540년대 이후 백제와 임나일본부는 임나의 부흥을 꾀했으나, 결국 562년에 신라가 임나 관가를 토멸함으로써 임나가 멸망하였다고 한다.

7) 그 뒤에도 일본은 임나 고지에 대한 연고권을 가져서 646년까지 신라에게 임나의 조(調)를 요구해 받아내었다고 한다. 즉, 임나일본부는 왜 왕권이 한반도의 임나 지역을 정벌해 현지에 설치한 직할의 통치기관이고, 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200년간 가야를 비롯해 백제·신라 등의 한반도 남부를 경영했다는 것이다.”<sup>4)</sup>

본 연구는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을 요지별로 분석하고, 상식적 근거에 맞지 않는 부분을 비판하는 이론을 본론의 장과 절에 나누어 전개하고자 한다.

(표-1) 스에마쓰의 <임나일본부설> 분석과 비판

항	스에마쓰가 주장하는 요지	스에마쓰가 주장하는 근거	분석과 비판의 핵심	비판의 근거 (본문의 위치)
1)	3세기 중엽, 왜왕이 변진구야국, 임나가라 점유, 삼한에 통제력 발휘	『삼국지』 「위지」 <왜인전>	임나가라, 삼국의 위치	Ⅱ-3 Ⅲ-1, 2 Ⅳ-2, 3

4) ‘남천사관(임나)에 대한 일본학계의 흐름 정리’(<https://blog.naver.com/joonho1202/221237908078>)와 전진국·이상희·김소정 역, 末松保和의 『임나흥망사』 번역 I, II(한국고대사 탐구 34)를 참고하였다.

항	스에마쓰가 주장하는 요지	스에마쓰가 주장하는 근거	분석과 비판의 핵심	비판의 근거 (본문의 위치)
2)	신공황후가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일부를 귀복시켜 임나 지배 체제를 구축했다 백제왕의 조공을 서약 받았다	『일본서기』	신공황후의 전투 지역 백제와 왜구의 관계	IV-2, 3 VI-1, 2
3)	광개토왕의 남벌과 임나가라 백제에 대한 복속 관계	‘광개토왕 비문’	임나와 축자의 위치	III-1, 2 IV-1, 2, 3
4)	『송서』에 기록된 왜왕의 작호 신라·임나·가라와 백제에 대한 영유권 인정	『송서』 <왜국전>	작호의 의미 왜의 위치	V-1, 5, 6
5)	일본은 5세기 후반에 임나에 대한 통제력 상실	『남제서』 <가라 국전>, 『일본서 기』 게이타이왕	신라의 위치	IV-3 V-1, 2
6)	백제와 임나일본부는 임나의 부흥 운동, 신라에 의해 실패	『일본서기』 긴메이왕 조	신라, 백제, 왜 의 위치	IV-3 V-1, 2
7)	646년까지 일본은 신라에게 임나 고지에 대한 연고권 요구	”	”	IV-3 V-1, 2

### 3. 『삼국지』 「위지」 <왜인전>의 해석

스에마쓰가 주장하는 『삼국지』의 「위지」 <왜인전> 관련 부분은 이렇다.

<왜인전> “경초 2년(238) 6월, 왜의 여왕이 대부(大夫) 난승미(難升米) 등을 군(대방군)에 보내어 천자에게 조헌(朝獻)하기를 청하니 태수 유하(劉夏)가 사신을 보내, 이들을 데리고 경도(京都, 위의 수도)로 호송하게 하였다. 그해 12월에 조서를 내려 왜 여왕에게 답하기를 친위왜왕 비미호에게 제조(制詔: 칙령을 내림)한다. 대방태수 유하가 사신을 보내 그대의 대부 난승미와 차사(次使) 도시우리(都市牛利)를 호송하고, 그대가 바친 남자 생구(生口, 노비) 4명과 여자 생구 6명, 반포(班布) 2필 2장을 가지고 도착하였다. 그대는 물건너 멀리 있으면서도 곧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는데, 이는 그대의 충효(忠孝)일지니 나는 그대를 심히 가락히 여긴다. 이제 그대를 친위왜왕으로 삼아 금인(金印)과 자수(紫綬: 정3품 이상을 나타내는 자주빛 끈)를 내리니 대방태수에게 보내 장봉(裝封: 물건을 싸서 봉인)하고 그대에게 가수(假授: 대신 수여)하도록 한다. 그 종인(種人)들을 수무(綏撫)하고, 효순(孝順)을 행하는 데 힘쓰라. 그대가 난승미와 (도시)우리를 사신으로 보내 먼 길을 걸어오며 부지런히 힘썼으니 이제 난승미를 솔선중랑장(率善中郎將)으로, 우리를 솔선교위(

率善校尉)로 삼아 은인(銀印)과 청수(靑綬: 푸른빛 끈)를 내리고, (두 사람을) 불러서 만나 노사(勞賜: 노고를 위로)하고 돌려보낸다(景初二年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子朝獻, 太守劉夏遣吏將送詣京都。其年十二月, 詔書報倭女王曰:「制詔親魏倭王卑彌呼: 帶方太守劉夏遣使送汝大夫難升米、次使都市牛利奉汝所獻男生口四人, 女生口六人、班布二匹二丈, 以到。汝所在逾遠, 乃遣使貢獻, 是汝之忠孝, 我甚哀汝。今以汝爲親魏倭王, 假金印紫綬, 裝封付帶方太守假授汝。其綬撫種人, 勉爲孝順。汝來使難升米、牛利涉遠, 道路勤勞, 今以難升米爲率善中郎將, 牛利爲率善校尉, 假銀印青綬, 引見勞賜遣還).」 또, “그 나라(왜)는 본래 또한 남자를 왕으로 삼았는데, 70~80년을 다스리다가 난이 있어 왜국이 어지러워져서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려고 오랫동안 서로 싸웠다. 이에 공동으로 한 여자를 왕으로 세우니, 이름을 비미호(히미코)라 한다(其國本亦以男子爲王住七八十年 倭國亂相攻伐歷年 乃共立一女子爲王 名曰卑彌呼).”

스에마쓰는 조선의 고대사 즉, 삼국과 삼한 그리고 가야가 한반도에 있었다는 전제 아래 일본열도의 왜가 한반도의 임나를 거쳐서 위(魏)와 교통하였고, 왜왕이 삼국과 삼한에 통제력을 미쳤다고 보았다.

당시 변진구야국은 중국에 있었고(오운홍 2022: 129~134), 신라와 고구려, 백제 삼국이 중국 대륙에 있었다(본문 IV장). 또 V장-1.3.4.5.6에서 논의하겠지만 야마토 왜의 위치는 중국 남동해안이므로 스에마쓰 이론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비미호 여왕의 활동 시기와 행적과 신녀(神女)라는 점을 종합할 때, 수로왕의 왕녀 비미호로 본다. 그녀는 수로왕의 장자 거등(왕: 199즉위)이 형제 왕자들을 의심하므로, 동생 선견(仙見) 왕자를 데리고 규슈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후일 선견 왕자의 증손 진무(神武)는 동천하여 천황이 된다(최성규;60~63). 비미호는 활동 연대(238)로 보아 신공황후(369)와 다른 인물이다. 「위지」 <왜인전>은 일본열도에 대한 기록이고, 당시 야마토 왜는 중국 남동해안에 있었다.

### III. 임나국과 축자국의 위치 추적

#### 1. 일본의 임나국과 축자국 비정은 오류다

근세 이후 일본 학자들은 ‘송신천황 조의 기록’을 엮어 정한론을 만들었다.

『일본서기』 송신천황 “65년(87) 가을 7월 임나국이 소나갈길지를 보내 (왜에) 조공하였다. 임나는 축자국에서 2,000여 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으며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六十五年秋七月 任那國遣蘇那曷叱知令朝貢也 任那者去筑紫國二千

餘里北阻海以在鷄林之西南).” 이는 임나의 위치를 가장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사이다. 이를 근거로 임나는 ①‘축자국에서 2천여 리 떨어져 있는(去筑紫國二千餘里) 땅’이다. ②‘북쪽은 바다로 막혀있는(北阻海) 땅’이다. ③‘계림의 서남쪽에 있는(以在鷄林之西南) 땅’이다. 일본 학자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첫째, 일본 학자들은 ‘축자국이 규슈 북안, 후쿠오카 근처’라고 말한다. 임나는 축자에서 북쪽으로 ‘①2,000여 리(800km) 떨어져 있다’ 했으니, 후쿠오카를 기점으로 삼아 컴퍼스로 돌리면 한반도의 청천강과 함흥 근처에 이른다. 임나가 있다는 곳은 ‘②북쪽으로 바다가 막혀있다’ 했는데, 바다가 아니라 낭림산맥이라는 산악으로 막혀있다. 이 지점은 임나국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둘째, ‘임나국이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하면서 계림을 한반도 ‘경주’로 보고, 앞의 조건③에 맞추어 경주의 서남쪽에 있는 김해(가야)를 임나로 보았다. 그런데 김해와 후쿠오카와의 거리는 약 240km(600리)쯤이다. 임나와 축자와의 거리가 2,000여 리란 기록과 맞지 않는다. 또 김해는 남쪽이 바다로 막혀있다. 북쪽이 바다로 막혀있다는 기록과도 정반대이다. 따라서 한반도 남부에서 임나국을 찾는 일은 포기해야 한다.

이에 혹자는 ‘기록의 수치가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연구자가 보기엔 기록은 맞고, 후세 사가들이 의도적으로 끼워 맞추려 하니 비정이 잘못된 것으로 본다. 축자를 후쿠오카에 비정한 것부터 잘못이라 할 수 있다.

## 2. google-map에서 찾은 임나와 축자의 위치

임나를 찾기 전에, 기점인 축자를 찾는 일이 순서다. 축자국 관련 기록이 있다.

『일본서기』에 웅략(雄略) “23년(479) 여름 4월 백제의 문근왕이 흥하였다. 천황이 곤지왕의 다섯 아들 중 둘째 말다왕이 젊고 총명하므로 궁중으로 불렀다. 친히 머리를 쓰다듬으며 타이르심이 은근하여 그 나라의 왕으로 하였다. 무기를 주고 아울러 축자국의 군사 500인을 보내 백제국까지 호송하였다. 이를 동성왕이라 한다(廿三年夏四月 百濟文斤王薨 天皇以昆支王五子中 第二末多王幼年聰明 勅喚內裏 親撫頭面 誠勅慰懃 使王其國 仍賜兵器 并遣筑紫國軍士五百人 衛送於國 是爲東城王).”

다음 절(IV-3)에서 밝히겠는데, ‘백제’는 중국 대륙에 있었고(오운홍:2021) ‘왜’ 또한 중국 사서에 ‘중국 남동부에 있었다’<sup>5)</sup>고 한다. 이를 근거로 중국 남동부에 있는

5) 『후한서』 <왜전>에 왜의 지명으로 회계(會稽), 주애(朱崖), 담이(儋耳), 이주(夷洲), 단주(澶洲)가 있다. 회계는 절강성(浙江省), 담이는 귀주성(貴州省), 주애는 해남도(海南島), 단주는 항저우(杭州) 입구이다, 그리고 이주는 바로 대만(臺灣, 타이완)을 나타낸다.

왜가 중국에 있는 백제에 군대를 파송하는데 중국에 있는 축자의 군사를 이용해야지, 바다 건너 후쿠오카의 군대를 끌어오는 것은 실행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축자는 중국 남동부에 있는 야마토의 이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축자국은 야마토 왜의 이웃이다.’라는 가설을 세운 데는, 중국의 사서 『후한서』와 『삼국지』를 근거하고, 천문학자 박창범 교수의 일식 기록 분석 등을 종합한 것이다. 야마토의 위치를 광시좡족자치구와 광둥성과 타이완을 중심으로 가정하고, 축자국의 위치를 google-map으로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광둥성 일대에 축(筑) 자가 붙은 지명들이 있다. 광둥성 광주시에 筑溪西街(축계서가)라는 도로명이 있고, 小筑(소축)이라는 cafe. art도 보인다. 가까운 홍콩에 筑地市場(축지시장)이 있다. 이 두 도시와 위도가 비슷한 위치의 타이완 서안에 ‘筑間幸福鍋物 台南府前一店’, ‘筑間幸福鍋物 台南成大店’, ‘筑間幸福鍋物 台南中華店’ 등의 상호도 보인다. 축(筑)자가 이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은 광둥성 광주시와 홍콩을 근거지로 축자국이 있었다고 본다.

광둥성 일대를 축자국으로 잠정하고, 송신천황 조의 기록, ‘임나는 축자국에서 2,000여 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다’를 적용하여, 홍콩에서 북쪽으로 2,000여 리 떨어져 있는 지점을 현대 지도에서 찾았더니, 저장성 북부 회계군이다. 그곳은 북쪽이 바다(항저우만)로 막혀있는 땅이다. 과연 그곳에 임나가 있었을까 하여, google-map으로 임나(任那)의 ‘임(任)’이 들어간 지명을 찾았더니, 任家橫村(임가 횡촌), 任新村(임신촌), 任宋村(임송촌), 任佳溪村(임가계촌) 그리고 인근 사오싱시(紹興市)의 任家(任)村(임사촌) 등 집성촌을 찾을 수 있으며, 任之堂中醫理療養生館(임지당중의리요양생관) 등도 보인다.

회계군에 있는 Ningbo와 그 연안에 신라초(新羅礁)가 있는 주산군도는 원래 신라군도였다. Ningbo를 신라의 계림으로 보면, 임(任)씨 일족의 임나(任那)는 계림의 서남쪽이 된다. 송신천황 조 기록이 정확함을 인정할 수 있다.

#### IV. 광개토왕 비문 해석과 삼국의 정세

##### 1. 광개토왕의 남벌 코스와 임나가라

임나가라는 광개토왕 비문에도 있다. “영락10년(400)에 보병과 기병 오만 병사를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도록 했는데, 남거성을 지나 신라 도읍에 이르렀다. 왜구가 득실거렸는데 (고구려) 관군이 왜적을 패퇴시켰다. 퇴각하는 왜구의 배후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까지 쫓아가니 임나가라는 항복하였다(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求



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倭賊退 ○○○○○○○○來背 急追之 任那加羅 從拔城 城即歸服).” 신라성을 점령했던 왜구가 신라를 구원하러 온 고구려군에 쫓겨 종발성까지 이르자 임나가라가 항복했다는 기사다.

이 같은 기록이 이맥의 『태백일사』 <고구려국본기>에도 있다. 광개토경호태황은 “일단 스스로 바다를 건너서는 이르는 곳마다 왜인들을 격파하였다. 왜인은 백제의 보좌였다. 백제가 먼저 왜와 밀통하여 왜로 하여 신라의 경계를 계속 침범하게 하였다. 제(帝)는 몸소 수군을 이끌고 <중략> 임나(任那)와 이왜(伊倭)의 무리가 신하로서 따르지 않는 자가 없었다(一自渡海所至擊破倭人 倭人百濟之介也 百濟先與倭密通使之聯侵新羅之境 帝窮率水軍攻取 <중략> 任那伊倭之屬莫不稱臣)”(임승국: 265~266).

광개토왕의 남벌은 백제를 돕는(용병) 왜를 소탕하는 수륙 양면 작전이라고 본다. 또 왜의 세력에 대해 “왜는 회계군의 동쪽 동야현에 있으며, 배로 9,000리를 건너 나패<sup>6)</sup>에 이른다(倭在會稽郡東冶縣之東 舟渡九千里至那霸)”(임승국: 267)고 했다. 왜의 영역이 동야현에서 나패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써 광개토왕이 중국 동해안을 따라 회계군까지 남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본 학자와 국내 강단사학자들이 광개토왕은 한반도를 관통하여 금관가야를 침공(김태식 1985·1993을 인용한 박천수의 27쪽,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43쪽)했고, 이에 따라 전기 가야가 쇠락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김해 가야의 쇠락 원인이 쇠를 뽑는 철광석의 고갈이라는 이론을 내놓았다(오운홍 2023: 281~285). 광개토왕의 남벌 동기는 신라가 백제와 왜의 위협을 받은 것이고, 이들이 중국 대륙에 존재했다는 것(IV-3)이 밝혀진다. 따라서 한반도로 진군할 이유는 1도 없다. 김해 가야와 광개토왕의 남벌은 관련이 없는 일이다.

## 2. 중국 동해안의 가야(라)가 한국사에 등장하는 이유

『삼국사기』를 보면 가야의 침공 기사가 여러 번 나온다.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조에 가야가 15년(94)에는 마두성(馬頭城)<sup>7)</sup>에, 17년에는 남쪽 변경에 침입했고, 18년에는 가야왕이 화친을 요청하였으며, 27년(106)에는 신라가 가야를 친 기록이 있다.

당시 신라의 위치는, 6년(85)에 신라 북방에 있는 백제의 침략을 받았고, 30년(109)에 황충(메뚜기떼)의 피해 등으로 보아,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이 분명하다. 또 신라 남쪽에 수로왕의 금관국(가야)도 대륙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반도

6) 고(古) 시대 오кина와의 나패(那霸; 나하) 사람들은 대화(大和:야마토)라는 자존심의 경계로 삼았다.

7) 가야군이 포위했다는 신라의 마두성은, 지금의 안후이성 북부 신마교(新馬橋, E117°20' N33°10') 서쪽에 있는 고성(古城)으로 본다. 합비(경주)에서 130km 거리에 있다. 고성 서쪽에 馬集, 馬店, 馬廟, 馬店孜 등의 지명이 있다. 구글지도에 의하면 ‘馬燕拍樑’라는 음식점도 보인다.

의 김해 가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중국에도 가야와 가라가 존재했었다고 본다.

환경생물 저술가 이진아<sup>8)</sup>에 의하면, “구글 지도에서 ‘GAYA’라는 지명을 찾으면 동남아 일대에 무수히 많다” 한다. 이들 가야인은 BC4 세기 경, 인도에서 코살라왕국이 불교를 탄압<sup>9)</sup>할 때, ‘부다 가야’를 떠난 유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유민이 동남아 일대와 한반도에만 간 것이 아니라 중국 동해안에도 갔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금관가야뿐 아니라 ‘임나가라’ 혹은 강수(强首)의 ‘임나가량’도 같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임나가라가 중국 동해안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듯, 광개토왕의 남벌은 중국 동해안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3. 신라와 백제의 천도로 본 상호 위치 확인

『수서』와 『구당서』가 ‘신라의 위치는 한(漢)나라 때 낙랑 땅’이라 했다. 한나라의 낙랑은 한사군의 낙랑군을 말하며, 낙랑부를 둔 왕험성이 지금의 낙정(樂亭, E118°55’ N39°25’)<sup>10)</sup>이다. 신라가 일어난 곳을 낙정의 변방<sup>11)</sup>으로 본다.

『북사』에 백제의 동쪽 끝은 신라이고, 서쪽과 남쪽은 모두 큰 바다를 한계로 했으며, 북쪽 끝은 한강에 접했다(北史云 百濟東極新羅 西南俱限大海 北際漢江)’고 했다. 이때는 백제가 첫 도읍지, 위례성(지금의 북경)에서 남쪽으로 조하(한강)를 건너 천도한 후의 기록이다. 여기서 한강<sup>12)</sup>은 ‘북대(北帶) 한수(漢水)라는 조백하’를 말하며, 북쪽이 한강에 접한 것으로 보아, 온조왕 14년(BC5)에 한성(1)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의 백제를 말한다. 또 대해(大海)는 발해만과 이어진 황하의 해하(海河)를 말한다.(오운홍 2021:68~69) 이때 백제 동쪽에 신라가 있다는 말은, 낙정(낙랑부) 변방에 있었던 신라의 위치와 일치한다. 초기 백제와 신라의 위치 관계를 『북사』가 확인해주고 있다.

백제의 세 번째 도읍, 한성(2)은 <백제본기> 13대 근초고왕 ‘26년(371)에 한수(항하) 남쪽 한산으로 옮겼다’는 도읍이다. 이곳은 ‘24년(369) 11월에 한수 남쪽에서 왕이 친히 군사를 사열했는데, 기(旗)는 모두 황색을 썼다’는 군대 사열 장소이기도 하다. 이후 20대 개로왕까지 천도 기록이 없는 데다, 한성이 함락(475)되고 왕이 살해될 때까지 한성(2)은 100여 년간 존속했다고 본다.

8) 주간조선 [2668호], “인도에서 한반도 낙동강까지... ‘가야’가 새겨진 역사”, 2021.08.09.

9) 불교가 생겼을 때, ‘카스트(Caste)’제도 즉 ‘바르나(Varna)’라는 계급사회가 존속하고 있었다. 불교는 이런 브라만교(힌두교)의 계급 전통을 타파하고 평등을 주장하며 일어난 신생 종교이다. 평등사상의 불교를 신앙함으로써 카스트제도의 악습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중생이 모여들었다. 불교는 브라만의 대항 세력이 되어, 주로 높은 계층이 아닌 하급 계층 천인(賤人)들이 주로 신앙의 대상이므로 탄압을 받게 된다.

10) 오운홍 <진·한대의 요수·패수와 함독현·왕험성의 위치 탐색>, 대한국제학술문화제, 2023.6.

11) <신라본기> BC28년 낙랑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신라 마을에 야밤 탈취하려다 포기한 기록이 있다.

12) 우리 고대사에 한강이나 한수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같은 강이 아니다. 많은 양의 물을 보면 ‘물이 한강이네’라는 동이의 정서에서 나온 명칭이다. 오운홍, 『한반도에 백제는 없었다』, 77~79쪽. 참조.

한성(2)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지명이 황하 중하류 유역에 남아있다. ①개로왕이 제방을 쌓았다는 사성(蛇城)<sup>13)</sup>과 숭산(崇山)<sup>14)</sup>이란 지명, ②‘낙양이 전(前)에는 하남’, ‘황하는 전에 한수’로 불렸다는 명칭의 유래, ③하남성 정저우(鄭州)시 혜제구(惠濟區:E113°37′ N34°53′)를 중심으로 반경 50km 안에 제(濟) 관련 지명이 무수히 많다<sup>15)</sup>는 것과 ④낙양 인근, 용문석굴의 석실 중에 백제계가 만든 석불이 남아있다는 것과 ⑤정저우 동편 카이펑(開封)이 신라 영역<sup>16)</sup>인데 신공황후의 첫 전투가 신라를 격파했다는 기록과 같다는 점, ⑥카이펑 동북쪽, 황하 남안에 있는 동명(東明:E115°3′ N35°17′)이 백제 5도독부<sup>17)</sup> 중 하나라는 점, ⑦동명에서 황하의 하류 쪽으로 210km에 지난(濟南)시와 제양(濟陽)시가 있고, ⑧동명에서 동쪽으로 130km에 지닝(濟寧)시가 있고, ⑨낙양시에서 황하 건너 북안에 제원(濟源)시가 있다. ⑩박창범 천문학 교수의 백제 일식 기록 분석에 의하면 ①-⑨등 지명들이 부분 일식으로 보이는 곳이며, 이들 지명의 분포로 보아 백제의 영역이니, 한성(2)을 정저우시 혜제구로 본다.

반면 신라는 낙랑 땅에서 일어났고 카이펑(개봉)을 거쳐 안후이성 허페이(合肥:E117°15′ N31°52′)가 중심이 됐다. 현대 중국 지도에 허페이 북쪽과 동쪽에 팔공산(E116°47′ N32°37′)과 (토)함산(E118°6′ N31°44′)이 있다. 또 <천하고금대총편람도><sup>18)</sup>에는 합비(허페이)에 경주(慶州) 표시가 있다. 합비에서 동쪽 300km 떨어진 강소성 쑤저우 호구산에 박혁거세(시조) 묘가 있다는 기록(『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으로 보아 합비를 신라 수도로 본다.<sup>19)</sup>

“『통전』에 백제는 남쪽으로 신라에 닿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를 한계로 한다(通典云 百濟南接新羅 北距高麗 西限大海).” 백제 남쪽에 신라가 있다는 것은 낙랑 땅에서 일어난 신라가 허페이(合肥)로 도읍을 옮긴 이후 일이다. 이때 백제가 ‘서쪽으로는 큰 바다를 한계로 한다’는 점에서 한성(2)으로 천도하기 전, 한성(1)의 위치라 본다.

13) 숭산에서 흘러내리는 황하의 지류 접점에 ‘廣州蛇(뱀사)慶添’이란 명칭이 있다.

14) 현대 중국 지도에는 숭산(嵩山)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동이어로 보면 훈과 음이 같은 글자이다.

15) 백제의 제(濟)를 google-map으로 찾으면, 濟衆診所(병원), 惠濟區教委, 濟善堂, 濟民東三店, 濟惠區檢察院, 濟康診所, 濟仁賢病医院, 濟生堂大藥房, 濟生堂診所(병원) 등의 명칭이 있다.

16) 『삼국사기』 <신라본기> 맨 끝에, 박혁거세의 모친 선도성모를 모신 우신관이 송나라 개봉에 있다.

17) 『삼국사기』 <백제본기> 맨 끝, 의자왕 20년조에 ‘당나라는 웅진(熊津), 마한(馬韓), 동명(東明), 금련(金漣), 덕안(德安) 등 다섯 도독부로 나누어 통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16) 1666년(현종 7)에 김수흥(金壽弘)이 만든 중국 중심의 지도, 목판본. 세로 142.5cm, 가로 89.5cm. 필사본도 전한다. 중국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지도 안의 해당 지역에 기록되어 있어 지지적인 내용이 결합된 역사지도적 성격의 지도라 할 수 있다.

19) <신라본기> (4대) 탈해이사금 3년(59)에 토함산에 오른 기록이 있다. 박혁거세를 시해한 운제(성모) 세력(오운흥, 2023:115-117쪽)과 (2대) 남해왕의 중심지 합비가 천도 절차 없이 수도가 된다.

당시 신라의 영토는 여러 곳에 있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고구려본기>, <백제서기>에 공통으로 나오는 견아성(犬牙城) 전투(494)가 있는데, 원래 신라 땅이다. 견아성이 살수 언덕에 있다고 했는데, 대릉하(오운홍 2022:30~36) 하구의 랴오닝성 진저우(錦州, E121°6′ N41°5′)를 말한다.

광개토왕 남정(400) 때 함락된 임나가라는 저장성 북부 회계군에 있음이 확인됐다. 훗날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Ningbo의 앞바다, 신라초(E122°23′ N29°55′)가 있는 신라군도(현 주산군도)를 확보하여 통일 후, 백제에 이어 해상왕국을 확장 시켰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성백제의 위치와 신라의 영토를 살핀 이유는 신공황후의 전투 코스를 좀 더 명확히 탐색하려는 데 있다.

## V. 야마토 왜의 위치 논의

### 1. 『일본서기』의 일식 기록으로 본 왜의 위치

일본 역사 아스카시대<sup>20)</sup>의 중심인물은 쇼토쿠태자다. 그가 모종의 임무를 띠고 일본열도로 파견된 때가 592년이고, 헤이조쿄(平城京) 천도가 시작된 때가 710년이다. 실제로 쇼토쿠태자가 건립했다는 호오류사 등 유적이 나라현에 남아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 기록된 아스카시대(592~710)의 일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 야마토 왜의 위치는 일본열도가 아닌 E110-126°, N12-26°이다. 이 지역은 대만, 중국의 하이난섬, 광둥성, 필리핀의 루손섬이다. 놀랍게도 중국의 사서가 말하는 왜의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 아스카시대의 활동 무대는 혼슈 나라현인데, 거기서 서남쪽으로 2,5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일왕을 보좌하는 일관(日官)이 있었다는 것은 일왕이 그곳에 있었고, 바로 야마토 왜의 본거지라 볼 수 있다.

### 2. 아스카(飛鳥)시대의 재해석

아스카시대의 끝은 나라(奈良) 시대(710-794)로 이어진다. 여성 천황인 겐메이(元明)덴노가 헤이조쿄로 천도했는데, 천도 기간이 5년이라 한다. 어디서 어떻게 천도를 했길래 5년을 소요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직전 도읍이 일본열도가 아니라 바다 건너에 있었다는 증거다.

중국에서 바다 건너 천도하려면 부녀자들도 동행하고 화물까지 실어 나르는 대선단을 이끌고 거센 파도를 넘어야 한다. 당시 범선이었을 텐데 풍향이나 파도를 고려하면, 중국 남동에서 일본열도로 운행할 기회는 계절풍과 무역풍 때, 각각 한 번이니 1년에 2회 왕복, 5년에 10회에 불과하다. 천도 기간 5년을 이해할 수 있다.

20) 아스카(飛鳥)시대를 구분할 때, 일본 문화사는 AD538-710, 일본 정치사는 AD592-710으로 본다.

쉽게 오갈 수 없는 난세이제도의 항행을 보며 아스카(飛鳥)라고 표기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아스카는 ‘날(飛) 새(鳥)’를 뜻한다. 그런데 비조라는 단어가 어떻게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었다. 천도 준비를 위한 쇼토쿠태자 일행이 물자와 자금과 기술자와 교체 병력을 수시로 실어날라야 하고, 진행 상황도 보고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 남동해안과 일본(혼슈) 사이를 때를 놓치지 않고 수없이 오가며 난세이제도의 수많은 섬을 어렵고도 날쌔게 건너야 한다. ‘비조’에는 mission을 띤 새(鳥)가 ‘둥지를 트는 시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본다.

### 3. 평장(平葬)한 일본 천황릉의 비밀

나라현에 있는 천무천황과 지통천황의 묘를 찾으면 봉분이 없다. 범부를 평장한 것도 아닌데 평지에 지표석만 있어 천황묘라 보기엔 초라하다. 천황릉이 모두 평장은 아니다. 일본 중세 가마쿠라 시대 이후의 천황릉은 봉분 형태로 남아있다. 그리고 오사카 예복사에 있는 쇼토쿠태자(574-622)의 묘소는 천황도 아닌데 크고 화려하다. 이보다 늦게 천황을 지낸 천무(672-686)와 지통(686-697)은 능묘가 없고 표지석만 있다. 이는 바다를 건너 천도할 때 두고 온 천황의 묘를 지표석이 대신한 가묘로 본다.

일본 고대사는 조몬(縄文)시대, 야요이 시대(기원전~372년), 야마토 시대(372~710), 나라 시대(710~794), 헤이안 시대(794~1192)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야마토 시대(372~710)의 전반(372~592)을 2개의 역사, 즉 ‘대화 시대와 고분 시대’라 하고, 후반(592~710)을 ‘아스카시대’라고 한다. 천황릉을 보면, 고분 시대의 봉분은 있는데, ‘대화 시대’의 봉분은 없다. 또 ‘아스카시대’의 천황릉은 평장이거나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야마토가 중국에 있을 때의 봉분이라 없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구심과 혼란을 일시에 덮고자 일제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책이 있다. 문화일보(2014.12.15.)에 의하면, 일본의 ‘천왕 없는 천황릉…메이지 정권의 급조된 역사 사기’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이다. “‘천황릉엔 천황이 없다.’ 메이지 정부가 발굴 조사 없이 고대 고분에 무작위로 이름을 붙인 행위를 비판하는 말이다.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천황’이라는 구심점이 필요했던 당시 정권은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 헌법)이 반포된 1889년부터 그간 소재 불명이었던 모든 천황릉의 위치를 확정했다. 또 ‘천황은 신성하고 침해받지 않는다’는 메이지 헌법 제1조에 따라 금족(禁足)령을 내렸고, 지금도 학술 연구를 위한 조사가 허락되지 않는다. 메이지(1852-1912)·다이쇼(大正·1879-1926)·쇼와(昭和·1901-1989)를 제외한 나머지 천황릉의 진위 여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메이지 정부가 발굴 조사 없이 고대 고분에 무작위로 이름을 붙인 행위는 발굴 조

사할 필요가 없으며, 조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부 천황릉은 일본열도에 존재하지 않았고, 중국 남동부에 살다가 그곳에 묻혔기 때문으로 본다.

#### 4. 『일본서기』 기록의 2주갑 인상의 문제점

『일본서기』의 신공황후 기사가 49년(249년)으로 돼 있다. 이는 한·중·일의 동양사 연구에 연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일본 국학계는 교육지책으로 이주갑인상(二周甲引上: +60+60=120년)이라는 연대 복원 방식을 쓰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본서기』 편찬은 천무천황(672-686)의 명을 받은 도네리친왕이 680년경에 시작하여 720년에 완성한 것이다. 그런데 역사 연대를 늘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개념(idea)’으로 인해 빚어진 오류로 연구자는 보고 있다. 도네리친왕이 『일본서기』를 일본열도의 정통 역사서로 만들고 싶었다. 왜냐면 헤이조쿄에 인접한 오사카에 있는 고분군(群)이 왕릉이라는 점과 고분 시대 왕통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들 왕통을 안고 가면서 두 가지 역사 연표, 즉 ‘야마토 왜의 왕통’과 ‘진무(神武)로 시작된 가야계의 왕통’인 두 줄의 역사(Y형)를 섞어, 한 줄(I형)의 왕위로 만들고자 했다. 실제로 『일본서기』에 기록된 왕위는 한 줄이다.<sup>21)</sup> 이 과정에서 연대가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면 최초의 진무 건국이 BC66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야마토 왕조가 열도로 진입하면서 두 왕조를 합한 결과이다.

#### 5. 대화(大和)는 일본열도 진입의 증거

일본인들이 즐겨 쓰는 ‘야마토(やまと, 大和)·와(화; 和)라는 명칭에서 왜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화(和, 와)는 아주 예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한다. 오키나와에서는 일본 본토를 자신들과 구분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출처; 나무위키).

고(古) 시대 오키나와의 나패(那覇; 나하)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미개한 ‘일본열도와 구분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화(和)에는 오키나와의 나하와 중국 대륙의 야마토(왜) 간에 문물교류가 일찍부터 있었고, 자신들은 선진이라는 자부심이 들어있다. 서쪽에 있는 야마토에서 여기(나패)까지가 대화(大和)라는 자존심의 경계라는 것이다. ‘야마토’에서 유래한 ‘화(和)’는 화식(和食) 등 일본을 뜻하는 말로 현대에도 쓰이고 있다. 대화(大和)는 야마토 정권이 일본열도에 진입하기 전, 중국 남동해안에 있었을 때 ‘왜’의 다른 이름이다.

#### 6. 대화(大和: 왜)와 송(宋)과의 관계

21) 일본 왕실은 기원전 660년경 태양신의 자손인 1대 진무(神武)천황부터 20세기 125대 헤이세이(平成)천황까지 2600년 동안 단 한 번도 피가 섞이지 않은 채 한 줄로 내려왔다고 주장한다.

『송서』 <왜국전>에 나오는 왜 5왕의 작호는 송나라의 근린 외교정책의 소산이다. 중국의 남북조 시대, 남조는 송(宋:420-478)→제(齊:479-502)→양(梁:502-557)→진(陳: 557-589)으로 왕권이 바뀐다. 『송서』 등 ‘남조(南朝)의 사서에 기록된 작호는 남조가 국경을 접한 나라의 왕에게 주어 사이좋게 지내자는 선린외교 정책’의 하나다. 왜 5왕의 작호는 아마도 왜가 송나라 남동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는 증거다.

작호의 명칭은 수령자의 요구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양나라 때 국경을 접하고 있던 백제왕에게 주어진 정동장군(동성왕)과 진동대장군(무령왕)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스에마쓰가 ‘외교적인 수단으로 준 작호’를 가지고 ‘신라·임나·가라에 대한 영유권을 중국 남조로부터 인정받았으며, 백제의 지배까지 송나라로부터 인정받 고자 하였다’고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 본다.

## VI. 신공황후는 백제의 용병이다

### 1. 신공황후의 전투 코스 분석

『일본서기』 <신공섭정전기(神功攝政前紀)<sup>22)</sup>>에 신공황후의 전투 기록이 있다.

신공황후 ‘49년(249) 봄 3월<sup>23)</sup>에 황전별과 녹아별을 장군으로 삼아 구저(久氐)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卓淳國)<sup>24)</sup>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이때 어떤 사람이 “군대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으니, 다시 사백·개로를 보내어 군사를 늘려 주도록 요청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곧바로 목라근자와 사사노궤 두 사람은 그 성(姓)을 모른다. 다만 목라근자는 백제 장군이다. 그에게 정병(精兵)을 이끌고 사백·개로와 함께 가도록 명하였다. 함께 탁순(國)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比自怳)<sup>25)</sup>·남가라(南加羅)·록국(喙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의 7국을 평정하였다. 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고해진(古奚津)에 이르러 남쪽의 오랑개 침미다례(枕彌多禮)<sup>26)</sup>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 왕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때 비리

22) 신공황후는 천황이 아니어서 『일본서기』에 신공섭정전기로 표기된다. 중애(仲哀) 재위(192-200)와 응신(應神) 재위(270-310) 사이가 비어 있는데, 이 기간이 섭정 기간이며 69년이다.

23) 신공황후가 신라를 공격하기 직전에 남편, 중애왕은 당시 웅습(熊襲, 쿠마소)의 반란을 진압하다가 2월에 전사했고, 진구 황후는 3월에 산달인데 돌을 허리에 차서 산도(産道)를 막았다 했다.

24) 탁순(卓淳)을 강어귀, 황하 하구로 본다. 구글 지도에 의하면, 하구의 빈주시 동편 해안가에卓이라는 요리집, 卓輝家私, 卓昊網絡科技(어망상회), 卓禾琴行一店(三店 등), 卓优特自行車(자전거 판매점), 卓藝培训学校 등이 보인다. 탁순(卓淳)의 淳은 ‘물에 젖은 습지’, 강어귀를 뜻한다.

25) 比自怳의 비(比)를 찾았더니, 산둥성 지난(濟南)시 서부 황하 변, 玉函路和 經十西路217号에 각각 比亞迪汽车(비아디기차)라는 자동차 대리점이 있어 중국에서 유일하게 比를 쓰는 지역이다.

26) 백제에 주었다는 枕彌多禮의 침(枕)을 google-map으로 찾았더니, 정저우시 혜제구에 中国电信枕輝合作营业厅(중국전신침휘합작영업청)와 枕居家紡(상점)이 있고, 그 남쪽 지역에 枕家灣(침가만), 宜城市板桥店镇荃枕初级中学(의성시판교점진신침초급중학), 南漳县荃枕中学(남장현신침중학) 등이 있다.

(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의 4읍이 스스로 항복하였다.(冊…九年春三月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氐等共勒兵而渡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沙々奴跪是二人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比自怛·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仍移兵西 至古爰津 屠南蠻枕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라는 기사가 있다. 49년(249)을 이주갑인상(+120)으로 환산(369)하니, 근초고왕 24년(369)에 해당한다. 여기서 초고(肖古)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근초고왕<sup>27)</sup>으로 본다.

신공황후는 백제의 지원군을 얻어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 등 7국과 침미다례를 평정하고 비리 등 4읍의 항복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야마오 유키히사(박천수, 24쪽)는 ‘신공황후가 평정한 지역에 대해, 신라를 경상북도 동부지역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경상도 서부 지역과 전라도 전역과 충청도 남부지역을 임나 경역(境域)’이라 주장한다. 식민사학으로 분류되는 우리 강단사학계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신공황후가 전투 전에 잠시 머문 ‘탁순(卓淳)’을 황하 하류, 즉 강의 입구 남쪽 언덕으로 보면, 7국은 그곳에서 황하를 거슬러 올라 장차 백제의 천도 예정지(한성2), 즉 정저우의 혜제(惠濟)까지 황하 유역에 있는 전투 지역으로 본다. 그중 신라의 고토(古土) 카이평이 있다. 369년 이후 백제와 신라의 중심부는 중국 중원에 존재했던 사실이 밝혀진 만큼 신공황후의 활동 무대 역시 중국 황하 유역으로 봐야 한다.

## 2. 신공황후는 백제 근초고왕의 용병이다

한·중·일 동양사에서 가끔 ‘바다를 건넜다(渡)’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渡(도)는 황해나 현해탄 등 월해(越海)가 아니라, 중국의 강이나 연안의 ‘수상 루트’를 이용했다는 뜻이다. 당시 신공황후의 야마토 왜는 중국 남동해안에 있었으므로 연안을 따라 항행(渡)했다고 본다.

앞의 기사에 백제의 초고(肖古)와 왕자 귀수(貴須)가 나온다. 왜(倭)의 신공황후는 백제의 지원군을 얻어 신라 일부와 7개국을 평정하였고, 평정한 땅을 백제에 이양했다고 한다. 이양하는 자리에 근초고왕 부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근초고왕 ‘24년(369년) 겨울 11월에 한수(漢水) 남쪽에서 왕이 친히 군사를 사열했는데 깃발은 모두 황색<sup>28)</sup> 깃발을 썼다.’

27) 초고(肖古)를 백제 5대 왕, 초고왕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그러면 연대가 맞지 않는다.

28) 동이는 물론 구려와 연결된 티벳까지도 5방색 깃발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내가 서 있는 땅, 중방이 첫째 방이고 황색이다. 천지현황(黃)도 이와 관련이 있는 색깔이다. 오방의 순서는 ①중방(황),



는 기사가 있는데 신공황후를 만나는 의식으로 본다. 황색 깃발의 의미는 5방위(方位) 중 한가운데 중방(中方)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서 있는 땅이 내 영토란 의미를 표시한다. 다시 말해, 신공황후가 빼앗아 이양해 준 그 땅에서 백제 근초고왕이 자신의 땅임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에 어떤 밀약이 있었기에, 이양받으면서 자신의 땅이라 과시할 수 있는 것일까?

신공황후가 369년 3월에 전투를 시작했고 11월에 끝냈으니 약 8개월에 걸친 전투였다. 왜가 전투를 시작할 무렵 병력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백제로부터 장수와 병력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주목할 것은 이로부터 2년 후 371년에 ‘근초고왕이 한산(漢山)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기록(<백제본기>)이다. 369년 11월에 사열한 곳이 한수(漢水) 남쪽이고, 2년 후 도읍을 옮긴 곳이 한산이라 했는데 같은 땅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규<sup>29)</sup>는 369년 11월의 군대 사열보다 3년 전(366)에, ‘백제와 왜의 국교 수립이 이뤄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백제와 왜의 국교 수립 때, 천도할 한수 이남의 땅에 대한 약정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

신공황후를 백제의 용병으로 보는 몇 가지 근거를 정리하면,

1) 왜(倭)의 신공황후가 8개월에 걸쳐 힘들게 빼앗고 평정한 7국의 땅을 백제에 이양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만약 형제 국가라 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병력을 동원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에게 줄 땅을 위해 싸웠다는 것이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용병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다.

2) 신공황후가 전투를 시작할 무렵, 병력의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백제에 장수와 병력 보충을 요청했고, 곧바로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 백제가 신공의 요청에 쉽게 응했다는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 같았기 때문으로 본다. 그리고 주력 부대는 신공황후의 병력이라 할 수 있다.

3) 백제 근초고왕 ‘24년(369년) 겨울 11월에 한수(漢水) 남쪽에서 왕이 친히 군사를 사열했는데 모두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백제본기> 근초고왕 조)는 기사는 그전에 남의 땅인데 ‘지금은 자국의 땅’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열하는 자리에 신공황후의 군대와 항복한 4읍의 군대도 있었을 텐데, 근초고왕의 군대만 황색기를 쓴 것은 이들 군대 중 이 땅의 주인은 백제라는 표시로 본다.

4) 신공황후로부터 이양받은 한수 이남의 땅에, 근초고왕은 ‘26년(371)년에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했다. 이양받은 땅에서 2년에 걸쳐 천도 준비를 한 셈이 된다. 신공

②북방(흑), ③남방(적), ④서방(백), ⑤동방(청) 순이다.(오운홍, 『고대사 뒤집어 보기』, 257쪽 참고)  
29)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백제왕조실록(증보판)』, (웅진닷컴, 2004), 140-141쪽.

황후는 백제가 천도할 도읍지 확보를 위해 7국을 평정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5) 박영규는, 신공황후가 전투를 시작한 '369년보다 3년 전에 백제와 왜(倭)의 국교 수립이 있었다' 한다. 필자가 추론하기엔 그때 왜(倭)와 백제의 근초고왕은 백제 도읍지 천도 장소를 마련하는 용병 계약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

6) 『일본서기』 <중애왕 조>에 보면, '신공황후가 신라를 공격하기 직전에 남편 중애가 웅습(熊襲, 쿠마소) 반란을 진압하다 전사했고, 황후 자신이 유복자를 임신하여 산당을 앞둔 최악의 상황인데도 전투에 임했다'는 사실은 '기한 내 약정 이행'이라는 강한 암시를 준다.

7) 『일본서기』에는 근초고왕이 신공을 만난 자리(369.11월)에서 '조공하겠다고 맹약하였다'고 한다. 연구자가 보기엔 앞의 상황을 종합할 때, 주군(主君)과 용병(傭兵)이 구별되는 상황에서 주군이 용병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공은 용병에게 줄 잔금 외에 추가 성과에 대한 사례금, 혹은 앞으로 전개될 황하 하류까지 새로운 항행의 안전보장을 위한 약정금으로 본다.

8) 도읍 천도에 따라 한성(정주, 혜제)-카이펑-탁순(강 하구)이라는 백제의 교역로가 추가되었다. 이 교역로의 안전을 위해 왜구 용병을 차용할 개연성이 있다.

9) 백제가 "소서노에 의해 건국할 때부터 상업 국가로 출발했다. 상업 국가의 특징은 국부(國富)와 이재(理財)가 우선이고 안보를 담당하는 군대는 최소화하여, 예기치 못한 장삿길에 발생하는 안위 문제는 돈을 주고 '맞춤형 용병'으로 해결했다." (오운홍, 『무령왕릉의 비밀』)

지금까지 신공황후를 백제의 용병으로 보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 VI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서기 송신천황 기록과 광개토왕 비(碑)가 말하는 임나가라의 위치는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저장성 회계군으로 밝혀졌다.

2) 임나일본부(설)의 시발, 임나(회계군)와 축자국(홍콩 부근)은 정확하게 2,000리의 거리를 두고 남북으로 위치한다는 송신천황 조의 기록과 일치한다.

3) 임나국이 왜왕(송신)에 조공을 바쳤다 하여 임나국을 점유했다는 스에마쓰의 해석은 잘못이다. 왜 5왕의 작호로 보아 왜도 송나라에 조공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공이란 고대국가에서 속국 개념이 아니라 선린외교 방책<sup>30)</sup>의 하나로 본다.

30) 참고로 고구려 장수왕 때의 경우 조공 기록을 보면, 진나라에 조공한 해가 413년, 위나라에는 425,

4) 신공황후의 전투 코스가 황하 하구(탁순)에서 중류 카이평(신라 영역)을 거쳐 정저우(혜제구:한성 터) 지역으로 밝혀졌다.

5) 신공황후는 임신 중에 근초고왕의 용병으로서 계약된 전투를 수행했다고 본다.

6) 신공황후는 중국 동남부에 있는 야마토(대화)의 왕족으로서 당시 일본열도에 있지 않았으므로 한반도와는 무관한 일이다.

7) 송신천황(87년)의 임나(저장성 회계군) 기록과 신공황후가 369년에 치른 전투 지역(황하 중하류 유역)과는 연대나 장소 등 어떤 연결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왜구가 용병인 처지에 주군인 백제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경영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 ‘일본’이란 국명 사용이 7세기 중엽 이후인데, 1-4세기에 ‘일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8) 한반도의 <임나일본부(설)>는 <조선사> 발간 전에 우리 역사서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인데다 한반도와 무관한 잡스런 이론(듣보잡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

9) 아스카시대는 야마토 왜가 일본열도로 천도하기 위해 준비한 기간으로 본다.

10) 야마토 왜가 열도 진입 후,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고분 시대의 왕조를 끌어안고 보니 역사 연대가 늘어난 것이고, 근·현대에 와서 ‘이주 갑인상’이란 해괴한 편법을 도출하게 된 것으로 본다.

11) 야마토 왜가 중국 남동해안에 존재했음이 중국 사서와 일식 기록으로 밝혀진 이상, 스에마쓰가 주장하는 『송서』 <왜국전>이나 『남제서』 <가라국전>과 『일본서기』 게이타이왕(507~531)과 긴메이왕(539~571) 때의 기록은 신라와 백제가 중국에 존재했던 시기이므로, 한반도에 적용하려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12) 야마토 왜가 일본열도로 진입할 때 천황릉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고, 평장한 천황릉과 그밖에 ‘천황릉의 비밀’도 역사 조작의 습성으로 볼 수 있다.

13) 야마토의 일본열도 위장 진입을 감쪽같이 은폐할 수 있는 역사 왜곡수법이 근·현대에 와서 정한론과 <임나일본부>라는 황당무계한 역사소설을 만든 것으로 본다.

14) 이를 종합하면, 일본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임나일본부’는 허구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2. 제언

1) 국내 학계에 대하여, <임나일본부>라는 용어 사용을 단절할 뿐만 아니라 <한국

---

435, 437, 439(2회), 462, 465, 466, 467, 468, 469, 470, 472(2회), 474, 475(2회), 476(3회), 477(2회), 479(2회), 484, 485(2회), 486, 487, 488(3회), 489(3회), 490(2회), 491(2회)년 등 총39회이고, 송나라에는 455, 463, 478년 총3회이고, 남제에는 480, 481년 등 총2회의 조공 기록이 있다.

고대사>를 새로 써야 하는 ‘국책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2)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배운 고대사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2세 학생들에게 또다시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배우게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가짜 역사를 바로잡는 교과서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3) 일본 학계에 대하여, 이번 연구가 본의 아니게 남의 나라(일본) 역사를 뒤엎는 연구를 병행하게 되어 유감이다. 이렇게 전개된 데는 과거 일인 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며 심어놓은 <임나일본부> 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부득이 들추어낼 수밖에 없었다. 양심 있는 학자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신의 나라 고대사를 이성의 눈으로 살펴보길 권한다.

#### ■ 현대 서적 및 지도

- ◇ 김정기, 『일본 천황, 그는 누구인가』, 푸른사상사.(2018)
- ◇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금성출판사.(2018)
- ◇ 박영규, 『한권으로 읽는 백제왕조실록(증보판)』, 웅진닷컴.(2004)
- ◇ 박창범,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 김영사.(2018)
- ◇ 박천수, 『가야문명사』, 진인진.(2018)
- ◇ 안경전 옮김, 『청소년 환단고기』, 상생출판.(2012)
- ◇ 오운홍, 『가야인, 나라 세우러 온 것 아니다』, 시간의물레.(2023)
- ◇ 오운홍, 『고대사 뒤집어 보기』, 시간의물레.(2020)
- ◇ 오운홍, 『무령왕릉의 비밀』, 시간의물레.(2021)
- ◇ 오운홍, 『한국사의 기준점 찾기』, 시간의물레.(2022)
- ◇ 오운홍, 『한반도에 백제는 없었다』, 시간의물레.(2021)
- ◇ 이덕일, 『조선사편수회 식민사관 비판 I』,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2022)
- ◇ 이종기, 『일본의 첫 왕은 한국인이었다』, 동아일보사.(1997)
- ◇ 임승국 번역, 『한단고기』, 정신세계사.(2016)
- ◇ 최성규, 『일본왕가의 뿌리는 가야왕족』, 을지서적.(1993)
- ◇ 한국고대사학회 엮음, 『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주류성.(2018)
- ◇ China Road Atlas, 산둥성지도출판사(山東省地圖出版社).(2006)
- ◇ 전진국·이상희·김소정 역, <『임나흥망사』 번역 I·II>(한국고대사 탐구34)
- ◇ 오운홍 <진·한대의 요수·패수와 험독현·왕험성의 위치 탐색>, 대한국제학술문화제, (2023.6.)

#### ■ 국내 신문 및 방송

- ◇ <문화일보> 일본의 ‘천왕 없는 천황릉…메이지 정권의 급조된 역사 사기’, (2014.12.15.)
- ◇ <조선일보>, 일(日)총독 “조선인은 조선사 모르게 하라”, (1986.8.17.).
- ◇ <주간조선> [2668호], “인도에서 한반도 낙동강까지... ‘가야’가 새겨진 역사”, (2021.8.9.)

■ 인용 또는 재인용한 동양 고전

- ◇ 김부식 저, 이재호 역, 『삼국사기(三國史記)』(2권), 솔(2006).
- ◇ 김수홍의 <천하고금대총편람도(天下古今大摠便覽圖)>
- ◇ 광개토왕 비문(碑文), ◇ 서거정의 『동국통감』(나무위키)
- ◇ 일연 지음, 이재호 옮김, 『삼국유사(三國遺事)』, 솔(2008).
- ◇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나무위키) ◇ 『구당서(舊唐書)』 <동이편>
- ◇ 『북사(北史)』 ◇ 『삼국지(三國志)』 「위지」 <왜인전>
- ◇ 『통전(通典)』 ◇ 『송서(宋書)』 ◇ 『수서(隋書)』
- ◇ 『고사기(古事記)』(일본) ◇ 『일본서기(日本書紀)』